-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

2025년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

울산광역시의회
ULSAN METROPOLITAN COUNCIL
(의회운영위원회)

공 무 국 외 출 장 개 요

1. 여 행 국 : 일본(오사카 일원)

2. 출장 목적

○ 2025 오사카 간사이 세계 엑스포 국외연수 추진을 통한 각 시·도 국제행사 유치 역량 강화 및 운영전략 벤치마킹

○ 미래사회 설계, 첨단기술·환경 체험을 통해 미래산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지역 경제 발전에 적용할 전략을 마련

3. 출장기간 : 2025. 7. 1.(화) ~ 7. 4. (금) / 3박 4일

4. 출 장 자 : 의회운영위원장 공진혁, 행정7급 조재한

5. 출장명단(전체) : 31명(위원장 13명, 시도의회 직원 15명, 협의회 3명)

소속	직위(급)	성 명	소속	직위(급)	성 명
충남도의회	운영위원장	이철수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	최현재
부산시의회	운영위원장	강철호	부산시의회	주무관	안기웅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이숙자	대구시의회	전문위원	예옥현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	하중환	인천시의회	주무관	이인숙
인천시의회	운영위원장	임춘원	울산시의회	주무관	조재한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	공진혁	세종시의회	수석전문위원	홍순제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	김영현	강원도의회	주무관	이성근
강원도의회	운영위원장	이한영	충북도의회	주무관	최선철
충북도의회	운영위원장	박용규	충북도의회	주무관	박용규
전남의도회	운영위원장	박문옥	충남도의회	주무관	김창겸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이춘우	전남도의회	주무관	김형준
경남도의회	운영위원장	정규헌	경북도의회	주무관	김정선
제주시의회	운영위원장	임정은	경남도의회	주무관	최은미
협의회(3)	행정실장	조미숙	제주시의회	주무관	차기광
	주무관	전홍수	제주시의회	주무관	조은민
	주무관	최재민			

Ⅰ 출장 현황

1. 출장 목적 및 배경

❍ 2025 오사카 간사이 세계 엑스포 국외연수 추진을 통한 각 시·도의 국제행사 유치 역량 강화 및 운영전략 벤치마킹

❍ 미래사회 설계, 첨단기술·환경 체험을 통해 미래산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지역 경제 발전에 적용할 전략을 마련

2. 출장 세부내용

날짜	지역	시간	일정	비고
7.1.(화) (1일차)	인 천 오 사 카 (간사이)	08:30~	○ 인천국제공항 등 출발	
	오사카	14:30~	[**기관방문**] 주일본 부산시무역사무소 및 주일본 대한민국전라남도사무소 방문 · 이상희소장(부산), 장대연소장(전남)	방문
		17:00	[현지시찰] - 오사카 지역 관광자원화 사례 현장 (사키시마 조망대, 오사카 복고풍 거리 신세카이& 츠텐카쿠)	시찰
7.2.(수) (2일차)	오사카	10:00 ~17:00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참관]** · 한국관 브리핑(관장) 및 한국관 관람(전남 일본소장)	참관
7.3.(목) 3일차	오사카	10:00	[현지시찰] - 고베 지역 관광자원화 사례 현장 (키타노이진칸, 롯코산)	시찰
		15:00	[**기관방문**] 주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방문 · 진창수 주오사카 총영사	방문
7.4.(금) (4일차)	오 사 카 (간사이) 인 천	11:55 ~15:30	○ 인천국제공항 등 도착	

Ⅱ 방문기관별 주요 활동

1. 주일본 부산시 무역사무소 및 주일본 대한민국 전라남도사무소 방문

□ 방문 개요

○ 일　　시 : 2025. 7. 1.(화) 14:30 ~ 16:00

○ 장　　소 : 주일본 부산시 무역사무소 회의실(주오사카 KOTRA 무역사무소 내)

○ 참 석 자

- 주일본 부산시 무역사무소 이상희 소장
- 주일본 대한민국 전라남도사무소 장대연 소장

○ 방문내용

- 일본내 부산사무소 및 전라남도 사무소 운영 현황을 청취
- 현지 진출 기업 지원 방안 및 지자체 간 국제교류 확대 방향 모색

□ 기관소개

구분	주일본 부산시 무역사무소	주일본 대한민국 전라남도사무소
설립목적	부산기업의 일본시장 진출 지원 및 통상 기반 구축	전라남도 기업의 수출 확대 및 일본 지역과의 교류 활성화
설립시기	1996년	2003년
소 재 지	오사카부 오사카시 주오구	오사카부 오사카시
운영주체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주요기능	▸ 수출상담 및 시장조사 ▸ 일본 바이어 발굴 ▸ 박람회·전시회 참가 지원 ▸ 현지 기관과의 교류협력	▸ 도내 중소기업 수출 지원 ▸ 일본 내 판로 개척 및 유통망 연계 ▸ 문화·관광 교류 확대 ▸ 일본 현지 자치단체와의 네트워크 강화
협력대상	KOTRA, 지자체, 일본 경제단체 등	일본 지방정부, 무역협회, 현지 유통망 등
특이사항	일본 내 지역전문 무역거점으로서 전략 품목 수출 확대에 주력	일본 전역을 아우르는 교류행사 및 사절단 활동 활발히 추진 중

□ 무역사무소 역할

① 주일본 부산시 무역무소

- **(기업지원)** 일본현지 전시회 참가, 각종 행사 지원 및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참가,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거점 운영 및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일본바이어와 연계, 수·출입 판로개척
  - '25. 9. 일본 생활잡화 전시회 "TOKYO GIFT SHOW" 참가예정(기업수 및 규모 확대)
  - '25. 6.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무역상담회 : 바이어 50개사, 부산기업 180개사 참가
  - '25. 5. 서일본 최대 조선 해양 산업전시회 이마바리 BARI SHIP 참가
- **(국제협력 지원)** 부산-일본 지자체간 국제협력지원, 민간교류협력 지원 및 시정관련 전반적인 분야 홍보
  - '25. 5. 한국 유학 바락람회 IN 후쿠오카
  - '25. 5. 오사카 도시브랜드 국제교류 협력
  - '25. 3. 부산항세미나 IN 교토
  - '25. 2. 와카야마현 워케이션 활성화 협력
- **(관광·시정 홍보)** 부산 홍보 이벤트 개최 및 참가, SNS 운영 및 각종 온·오프라인 홍보

② 주일본 대한민국 전라남도사무소

- **(신규 항로 개설)** 2026년 고치현 공항 개항에 맞춰 전남도 농수산물 수출항로 및 관광 연계 추진
- **(럭셔리 크루즈 노선 개설 제안)** 고치·미야자키·야마가타 등 일본 연안 도시와 여수, 목포, 완도 등을 연결하는 노선 구상·협의 추진
- **(전남 특산물(시범 수출) 일본 시장 진출)** 목포·진도·완도 등지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맞춤형 시범 수출 ※ 주요 품목: 모둠버섯, 햅쌀, 유자청, 김, 참깨 등 맞춤 수출을 위해 현지 바이어 요구에 따른 소포장·규격화 지원
- **(통상 지원 활동)** 수출 34건, 바이어 발굴 18건, 전시 참가 12회, 설명회 및 상담회 30회

- **(국제교류 협력 사업)** 총 18건의 교류 실적 (고치·오카야마·사가·니가타 등 지자체 방문 및 행사), 전남 고교생 초청, 전남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오사카 코리안타운 50주년 기념 전남 공연단 파견, 동경대생 글로벌 문화강연, 대통령실 농어업특보단 방문 연계 홍보 등
- **(관광홍보 및 설명회)** KTO 일본지사 협력 관광홍보 9회 (도쿄·오사카·후쿠오카 등), 일본 언론·여행사 120여 명 전남 초청, 남도오감 팸투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연계 홍보, SNS(인스타그램) 연간 850회 이상 지속 홍보
- **(전라남도 산업·투자 유치 활동)** 히로시마·오사카 등지에서 기업 대상 투자설명회 개최, 전남의 신재생에너지, 농식품, 환경산업 중심 설명, 투자 희망 기업과 1:1 개별 미팅·현장방문 유도

주일본 부산시 무역사무소 및 주일본 대한민국 전라남도사무소 방문

□ 주요 질의 응답

구분	내용	비고
질의	두 사무소 모두 해당 지자체의 산업과 기업 특성을 바탕으로 일본 현지에 밀착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해외 네트워크 기반 행정이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답변	· 전라남도사무소는 농수산물 수출, 부산시무역사무소는 기계·조선·소비재 분야를 중심으로 현지시장 수요에 맞춘 맞춤형 수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 바이어 초청 상담회, 현지 전시회 참가, 상설 전시관 운영 등을 통해 직접적인 수출계약 체결 및 거래선 확보로 이어지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음.	
	· 현지에 상주하는 사무소를 통해 국내 본청이 제공하기 어려운 신속한 시장조사, 현장 피드백, 통·번역 등 실무 지원이 가능하며, ·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나 초기 진출 기업도 안정적으로 해외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질의	일본 내 투자유치 활동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답변	· 오사카, 도쿄, 히로시마 등에서 IT기업, 농산업체, 환경기술기업 등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설명회 및 간담회를 4회 진행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현지 투자자 및 바이어 대상 개별 상담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지속 추진 중에 있음	
	· 브리핑 시 말씀드바와 같이 같이 전시회 참가 지원, 해외 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개최 하고 있으며 · 비즈니스센터 운영하며 일본 현지에서 부산기업 제품 샘플 전시 및 상담 지원등을 통해 부산기업의 일본시장 진출을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구분	내용	비고
질의	전라남도 농수산물의 일본 수출 지원 활동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나요?	
답변	전남 특산물(모둠버섯, 햅쌀 등)의 일본 유통매장 입점 지원 및 도쿄·오사카·효고 등지에서 품평회 및 시식행사 개최하는 등 현지 유통업체 바이어와 연결한 수출상담회 및 수출계약을 지원하고 있음	
질의	그 외에 건의할 사항이나 도와줄 사항이 있는지?	
답변	· 현재는 해외에 파견나온 지자체 공무원은 관용여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는 외교 예우, 면세·면책, 외교우편,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이 제한적임 · 외교관여권 소지 시 해당국 공공기관이나 경제단체로부터 공식 외교인 신분으로 인정받게 되어, 협상력과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됨. 특히 일본 등 외교예우 중시 국가에서 실질적 차이 존재. · 외교관여권은 지방정부 해외사무소가 공식 외교 채널로 기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되며, 사무소의 격과 외교적 위상을 높여 타국 지방정부와 대등한 협력이 가능해지며, **· 엑스포, 산업박람회, 무역상담회 등 국제행사 대응시 외교관여권 보유자만 접근 가능한 행사 및 구역이 있으며, 대외 활동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게 지자체 파견 공무원도 외교관 여권을 사용할수 있도록 건의함**	

2. 『2025 오사카-간사이 국제엑스포』 참관

□ 방문개요

○ 일　　시 : 2025. 7. 2.(수) 10:00~17:00

○ 장　　소 : 오사카 유메시마

- 오전 : 한국관 방문 / 오후 : 중국관 및 프랑스관 방문

○ 참 석 자 : 한국관 박영환 관장 외 관계자

○ 방문내용 : 2025 오사카-간사이 박람회 한국관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박람회 참관을 통해 국가별 미래 브랜딩 및 신기술 홍보에 대해 논의

□ 엑스포 주요 특징

○ 미래사회 실험장으로서의 박람회로 헬스케어, AI, 로봇, 지속가능성, 스마트시티 등 미래 기술의 융합을 집중 전시, 방문객의 체험 중심 콘텐츠가 강화됨. 관람객이 '직접 느끼고 참여'하는 형태의 박람회

○ "생명을 구하다, 생명에 힘을 주다, 생명을 잇다"를 중심으로 건강·기술·연대의 가치 강조. 팬데믹 이후 세계가 추구해야 할 공존·회복·협력의 메시지를 담음.

○ 탄소중립 박람회를 목표로 설계: 태양광·수소연료, 친환경 자재 사용, 폐기물 최소화. 개최지 유메시마는 엑스포 이후 친환경 스마트 도시로 재개발 예정.

□ 엑스포 참가 현황

○ 공식 참가국 및 지역 : 160개국·지역

아시아- 태평양	유럽	아프리카	중동
38개국·지역	43개국·지역	40개국·지역	10개국·지역

※ 최초 참가 : 통가(Tonga), 코모로(Comoros) 등 4개 소국이 첫 BIE 등록 엑스포 독립 참가.

○ 국제기구 9곳 중 UN은 35개 산하 기관이 공동 전시관을 운영, SDGs(지속가능발전목표)·기후행동·AI 거버넌스를 다룬다. EU는 그린·디지털 전환, ASEAN은 '미래 메콩' 공동관을 통해 역내 연계 인프라 프로젝트를 소개

○ 시그니처 총 8관 : 일본 정부 지정 총괄 프로듀서 8인이 기획, 한-일 스타트업 123곳이 공동 전시.

- Saving Lives Zone : 'Future of Well-being', 'Life Support Lab' 등 3관
- Empowering Lives Zone : 'Future Mobility Hub', 'Cybernetic Forest' 등 3관
- Connecting Lives Zone : 'Planetary Choir', 'Groove of Diversity' 2관

○ 기업관 12 동(일본 대기업 10 + 글로벌 2)

- NTT : 'Natural' - IOWN 차세대 광네트워크 실감 체험
- Panasonic : 'NOMO no KUNI' - 탄소순환·지역 거버넌스 체험
- Bandai Namco : 'GUNDAM NEXT FUTURE' - 17 m 실물 RX-78 가동형 전시
- ZERI Japan : 'Blue Ocean Dome' - CFRP 3연결 돔, 해양순환 모델 등

○ 일본 지방·권역관

- 간사이 9부현 연합 'Kansai Pavilion', 홋카이도·도호쿠 등 권역별 전시 4동, 총 5개 관.
- 47개 도도부현이 'TEAM EXPO' 프로그램을 통해 주간 교대형 팝업 부스를 운영, 지역 식문화·전통공예 체험 제공.

□ 주요키워드

○ 생명(Life) '생명을 구하다(Saving Lives), 힘을 주다(Empowering Lives), 연결하다(Connecting Lives)'로 요약되며, 이를 통해 인류가 직면한 보건·복지·감염병·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 다양한 국가와 기업들이 AI 의료기기, 바이오 헬스케어, 인간 중심의 기술을 전시하며, 삶의 질 향상과 생명 존중의 가치를 강조

❍ 기술혁신(Innovation) AI, 로봇, 자율주행, 메타버스, 수소에너지 등 미래 핵심 기술이 체험형 콘텐츠로 구현되며, 박람회는 단순한 기술 과시를 넘어 실제 생활 속 적용 사례를 보여주는 실험장으로 각국 파빌리온과 시그니처관에서는 스마트시티, 디지털트윈,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선도 기술이 소개되어 '기술과 삶의 통합'을 상징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탄소중립 박람회를 목표로 한 이번 엑스포는 친환경 목조건축물인 '그랜드 링', 재활용 가능한 자재, 수소 셔틀버스 운행 등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 모델을 실현,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자원순환 등 환경문제를 기술적·사회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ESG 시대의 공공정책 방향을 제시

❍ 연결과 연대(Connectivity & Solidarity) 전 세계 160개국과 9개 국제기구가 참여하며, 문화·기술·환경 등의 의제를 중심으로 협력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합니다. 파빌리온 간 공동관 운영, 지역·도시·민간의 파트너십, 디지털 박람회를 통한 글로벌 동시참여는 국경을 넘는 협력과 연결의 가치를 상징하며, 미래 사회가 지향해야 할 공동체적 비전을 제시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참관

□ 주요 질의 응답

구분	내용	비고
질의	한국관이 전체 엑스포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이고 어떤 가치와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지?	
답변	“디지털 기술과 인간 중심 가치의 연결”을 주제로, K-문화와 미래 비전을 통합 ‘초연결사회’에 걸맞은 기술·문화 융합 전시로서 국제사회에 한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자 했음.	
질의	각 시·도 지역 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전시 참여가 있는가? 지역별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답변	- KOTRA의 ’한류 연계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참여하고 있으며, 대전, 경북, 전남 소재 뷰티·바이오·푸드테크 기업이 공동 전시에 일부 참여하고 있음. - 광역시도 협조 없이 중앙 단위 모집이어서 제한적 참여, 추후 협력 확대 계획 있음	
질의	한국관 운영에 있어 현장 인력은 어떻게 채용되고 있는지 궁금하며, 우리나라 인재 참여 여부도 궁금함.	
답변	통역, 안내, 체험 운영요원 일부는 해외 유학생·한인 청년이 담당하고 있으며, 재일동포와 지역 한인회와의 연계 노력도 병행 중	
질의	박람회 이후 한국관의 활용 및 관리 계획은?	
답변	일부 콘텐츠는 국내 전시 순회 계획 중이며, 한류 콘텐츠 및 스마트기술의 국제 확산 자산으로 활용될 예정임.	

3. 주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방문

□ 방문개요

○ 일　　시 : 2025. 7. 3.(목) 15:00~16:00

○ 장　　소 : 주오사카대한민국총영사관 회의실

○ 참 석 자 : 진창수 총영사, 정무담당 영사 김지현, 전문관 남현정 등

○ 방문내용 :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현황 및 주요현안 간담

□ 주요활동

○ **(외교 및 지방외교 활동 강화)** 간사이 지역 내 지자체와의 교류를 통해 한일 간 우호 협력을 증진하고 지방정부 간 자매결연, 정책 협력, 공동 포럼 등을 지원하며 지방외교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2025 오사카 엑스포 등 주요 국제행사와 연계한 교류 확대에도 적극 참여

○ **(경제협력 및 기업지원 활동)** 한국 기업의 일본 내 진출과 활동을 지원하며, 통상·투자 관련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KOTRA, 무역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중소기업 지원, 투자 상담, 마케팅 활동을 돕고 현지 산업과 연계한 지자체 중심의 경제협력 모델 발굴 노력중

○ **(문화·교육 교류 및 한류 확산)**한국어 교육, 문화행사, K-콘텐츠 확산 등을 통해 일본 내 한류 저변을 넓히고 있음. 세종학당, 문화원 등과 협력해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대학생 교류를 통해 미래세대 간 이해 증진에도 힘쓰고 있음

○ **(재외국민 보호 및 민원 서비스)** 재일동포와 체류 국민 대상의 민원 행정과 안전 보호 업무를 수행, 위기 상황 대응 체계 운영, 여권·공증·출입국 민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현지 한인회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와의 연계 강화

주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방문

□ 질의응답

구분	내용	비고
질의	▪ 오사카부 및 간사이 지역과의 지방정부 차원의 지속적 교류 및 우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떤 사전 조율이 필요한지 총영사관 차원에서 중재나 지원 가능한 부분은? ▪ 현재 총영사관에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한일 간 지자체 간 교류 프로그램이나 협력 사례는?	
답변	▪ 오사카부 및 간사이 지역과의 지속적 협력을 위해서는 지자체 간의 실무 채널 확보와 주기적인 상호 방문이 선행되어야 함. 총영사관은 각 지자체의 수요와 관심 분야를 사전에 파악해 정책 매칭, 자매결연, 실무 간담회 조율 등의 방식으로 중재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 현재 총영사관은 오사카부·효고현 등 간사이 지역 지자체와 한국의 광역시도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문화행사 공동 개최, 청년 교류 프로그램, 기업 상호진출 협력 등을 추진 중임. 예를 들어, 2024년에는 오사카부와 인천시간 청소년 교류 캠프, 부산광역시-효고현 간 스타트업 매칭 세미나 등이 대표적 사례임	

구분	내용	비고
질의	▪ 2025 오사카 엑스포를 계기로 양국의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이 확대될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이며, 총영사관이 중점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협력 아이템이나 사례는? ▪ 대한민국 지자체가 엑스포 기간 중 지방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전시 참여 또는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할 경우, 총영사관 차원의 지원이나 협력 방안이나 사례는?	
답변	▪ 2025 오사카 엑스포는 한일 광역지자체 간 협력 확대의 계기로, 그린에너지, 문화관광, 스마트시티, 고령사회 대응 분야 등에서 공동 프로젝트 발굴을 기대하고 있음. 총영사관은 특히 청정에너지와 지역관광 활성화 분야에 주목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 대한 지자체 간 정책포럼 연계를 기획 중. ▪ 엑스포 기간 중 대한민국 지자체가 지역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전시 참여 및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할 경우, 총영사관은 KOTRA 오사카무역관, 한인경제단체 등과 연계하여 홍보·비즈매칭·행정협조를 지원하고 있음. 지방정부-총영사관-KOTRA 간 3자 협력 구조를 통한 공동 홍보관 운영 사례도 검토하고 있음.	
질의	▪ 재일동포 사회와 한국 지방정부 간 교류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황으로 각 시·도의회가 재일 동포 단체나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해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은? ▪ 한일 양국의 청년세대 교류, 특히 지방의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교육·산업 연계 프로그램 소개 및 확대 방안은?	

구분	내용	비고
답변	▪ 재일동포 커뮤니티와 한국 지방정부 간 교류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분야로 각 시·도의회에서 재일동포 단체와의 정례 간담회 개최, 지역 특화 문화행사 초청, 지방 유학생과의 정책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연계를 강화할 수 있으며, 총영사관은 이를 위한 단체 소개, 일정 조율, 행사 장소 확보 등 실무 지원이 가능함 ▪ 청년세대 교류 측면에서는 현재 한일 청소년 포럼, 한일 대학생 공공외교 캠프, 한일 공동 인턴십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총영사관은 지방청년 대상 참여 통로 확대와 지방대학 연계 협력을 적극 모색하고 있음. 특히, 산업 연계형 청년 프로그램(디지털·콘텐츠·관광 분야)의 지방 확장을 추진 중임.	
질의	일본 지방의회와의 교류 확대를 통해 한일 지방외교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실질적 접근법에 대한 조언은?	
답변	▪ 일본 지방의회와의 교류는 단순 의례성 방문을 넘어, 정책토론 중심의 간담회, 의정 포럼 공동 개최, 환경·복지 등 정책 분야별 비교 교류로 확장될 수 있음. 실질적인 교류를 위해서는 현지 의회와의 지속적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하고, 중장기 교류 의제 설정이 중요함. ▪ 총영사관은 한일 지방의회 간 실질적 교류 강화를 위해 의회 실무자간 교류 확대, 공통 현안(기후, 복지, 인구 등)에 대한 공동 포럼 구성, 의원 교차 연수 프로그램 등의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관련 일정 및 주제 설정에 있어 정기적 조율과 후속 협의도 적극 지원할 계획임.	
질의	2025 오사카 엑스포를 계기로 양국의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이 확대될 수 있는 분야는?	
답변	▪ 엑스포 주제가 ‘미래 사회를 위한 설계’인 만큼 도시재생, 친환경 인프라, 탄소중립 기술 등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 및 기술 교류가 활발히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Ⅲ 시사점 및 활용 방안

1. 시사점

주일본 부산시 무역사무소 및 주일본 대한민국 전라남도사무소

○ 지방정부 해외사무소의 전략적 가치 재조명

- 부산시와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일본 내 사무소는 단순 홍보 기능을 넘어서, 수출상담, 시장정보 제공, 바이어 연계 등 현장 밀착형 통상·외교 허브 역할을 수행 중임. 특히, 도쿄 중심의 외교 네트워크에 비해 오사카 등 새로운 지역 거점 확보의 필요성과 효과성이 높음

○ 외국 파견 지방공무원의 외교적 지위 강화 필요

- 파견된 사무소장은 일본 지자체·경제단체 등과 공식 접촉하며 실질적인 외교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관용여권만으로는 외교적 신분이 제한되어, 활동에 제약을 받고 협상에서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교관 여권의 발급은 꼭 필요하며**, 향후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지역 산업의 수출 전략 다양화에 기여

- 전라남도 사무소는 식품·농수산물의 일본 내 판촉행사를 정례화하고, 부산 사무소는 조선·기계 부품 중심의 바이어 상담을 수시로 진행하며 산업 특화형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이는 지역 특성과 연계된 맞춤형 통상지원 모델로 타 지자체에 적용 가능

○ 일본 지방정부와의 협력 플랫폼 확대 가능성

- 양 사무소 모두 일본의 지역 정부, 상공회의소, 경제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동행사를 운영하고 있음. 특히 오사카·효고현 등과의 지자체 간 MOU 체결, 박람회 공동 참가 등 지역외교 플랫폼으로서 활용도가 높음

『2025 오사카-간사이 국제엑스포』

○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외교역량 강화 필요

- 일본의 지방정부(오사카부·오사카시)가 국제행사를 유치하고 주도하는 모습은 지방정부도 외교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원활한 행사 진행 및 자발적인 주민 참여 등을 위해서는 지방 의회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음

- 지방의회도 지방외교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 필요

○ 지방정부 중심의 행사 기획과 운영 역량 강화

- 오사카부는 유치·계획·운영까지 주도하였으며, 오사카부의회는 예산 심의·행정·감독 등에서 중요한 역할 수행

- 대규모 국제행사를 위한 의회-행정부-민간 협력체계와 거버넌스 설계의 중요성을 체감. → 지방의회는 단순 견제 기능을 넘어 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 파트너가 되어야 함

○ 스마트시티 및 미래기술 도입 및 지원 방안 검토

- AI, 자율주행, 수소에너지 등 미래기술이 실제 도시에서 구현되고 있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단위 규제 정비, 스마트 인프라 조성 예산 확보, 기술 윤리 감시 등이 의회의 핵심 기능이 될 수 있음. → 미래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선도적·주도적 추진 필요

- 엑스포 이후 유메시마 지역은 스마트시티와 친환경 거점으로 전환 예정으로, 이는 단발성 행사가 아닌 도시 브랜드 구축과 장기적인 도시계획과 연결되어 있음. → 지방의회는 집행부와 협력하면서 지역행사와 도시계획을 연계하는 정책 조정자 역할 수행 및 지원 방안 검토

주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 **외국 지방정부·의회간 교류 확대 추진**

- 안보·외교 등 국가 차원의 교류 외에 청년 취업, 지역 소멸 등 지방정부·의회별 상황에 맞는 공동 의제를 발굴하고 정기적·지속적 교류 추진으로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 모색

· 사례 : 전라남도에서 국제 자매도시인 고치현과 자매 결연 10주년을 맞이하여 제안한 전남과 일본 고치현을 잇는 크루즈와 공항 노선 개발 추진 논의

2. 활용방안

○ 해외에 파견된 지자체 사무소는 수출·투자유치·문화교류 등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제도적 기반(외교관여권 등) 마련 및 실질적 성과 확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협력 강화 필요

- 해외 사무소가 있는 시·도는 외교관 여권 취득을 위한 외교부와 협의 필요
  → 시·도의회에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 배포시 협의 추진 안내

○ 미래 기술 및 도시 정책 대응역량 제고: 엑스포 현장에서 확인한 스마트시티, AI, 수소에너지 등 신기술이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강소기업(작지만 강한 기업)을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등 집행부와 협력 모색

○ 시·도 집행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직의 규모 및 인원 등이 작은 시·도의회 상황을 감안하여 의회 차원의 지방 외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 및 연합 방안 등을 강구하고 외국 도시와 지속 교류 등 장기적 발전 방안 추진

- 연합 활동 사례 : 4대 지방 협의체, 충청광역연합 등
- 외국 도시와 교류 : 의원 친선 연맹, 국제도시간 자매 결연 등

Ⅳ 개별 보고서

방문기관명 : 주일본 부산시무역사무소, 주일본 대한민국전라남도사무소,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주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주요활동 내용	○ 주일본 부산시무역사무소 및 전남 일본사무소 - 오사카 내 KOTRA 무역관에 입주해 있는 부산광역시 무역사무소와 전라남도 일본사무소를 차례로 방문. 양 지자체 사무소는 KOTRA와 사무 공간 및 일부 자원을 공유하고 있으며, 현지 바이어와의 연결, 수출 상담회 개최, 통관 및 인증 관련 정보 제공 등 실질적인 수출지원 업무를 수행. 사무소 관계자는 특히 소비재 및 식품 분야는 일본 내 수요가 지속되고 있어 한국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영역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일본 시장의 보수적인 특성상 사전 수요 조사와 철저한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또한 초기에 무역사무소를 설치할 때에는 자체 운영보다 KOTRA와 협업을 통한 단계적 진출이 현실적이라는 설명도 있었음. ○ 2025 오사카 엑스포 참관 - 엑스포는 현재 유메시마 인공섬에서 활발하게 운영 중에 있으며, 세계 150여 개국이 참가한 대형 국제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 현장을 방문한 당일에는 한국관 및 중국관을 을 관람하며 운영 방식과 콘텐츠 구성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특히 한국관은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수소경제, K-콘텐츠, AI기술 등의 분야를 효과적으로 전시하고 있었고, 관람객 참여형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흥미를 끌고 있었음. - 중국관에서는 중국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요소들을 전시하고 있었는데, 대형 스크린에 중국의 문자를 상형화하여 웅장한 느낌을 주었고, 중국의 현재와 미래 기술력을 보여주는 미래 도시를 형상화한 모형, 달 탐사 및 해저 탐사 관련 물품 등을 볼 수 있었음.

주요활동 내용	○ 주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 현지 총영사 및 실무진과의 간담회를 통해, 일본 간사이 지역 내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현황과 더불어 총영사관이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 간 협력 촉진 역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음. - 총영사관은 우리나라 지자체들의 일본 내 교류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문화행사, 기업 간담회,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외교 채널을 운영 중이며, 특히 오사카부 및 효고현 등과의 교류 수요가 높은 상황임을 확인 - 실무진은 지자체가 현지 진출을 원할 경우 사전 협의에 따라 필요한 행정 및 네트워크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고, 울산시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할 때 수소, 조선, 친환경차 분야 중심의 기업 및 교류사업이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
연수국가 또는 기관에 대한 시사점	○ 주일본 부산시무역사무소 및 전남 일본사무소 - 울산시의 경우 본 내 거점이 전무한 상황이며, 울산 기업 중에서도 일본 시장 진출에 관심 있는 업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통상사무소 설치에 대한 전략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부산과 전남의 사례를 보면, 소규모 인력과 제한된 예산으로도 일정 수준의 성과를 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울산시도 유사한 방식으로 접근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참고 모델이 될 수 있음. ○ 2025 오사카 엑스포 참관 - 이번 참관을 통해 울산광역시 역시 향후 국제 박람회나 전시회에 참여할 경우 단순한 산업 전시를 넘어, 관람객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와 스토리텔링형 전시기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꼈다. 특히 엑스포처럼 대규모 국제행사를 활용한 산업·관광 융복합 전략은 울산광역시가 수소도시, 해양관광도시로서의 브랜드를 알리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벤치마킹할 가치가 충분.

연수국가 또는 기관에 대한 시사점	○ 주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 총영사관이 단순한 외교 업무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정부 간 연계 촉진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 - 특히 울산시가 일본 내 자매도시 확대 또는 산업교류를 강화하고자 할 경우, 총영사관과의 협조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얻었다. 향후에는 단기성과 위주의 접근보다는 장기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인적 교류 확대를 병행하여 지역 외교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